

# 전남도, 석유화학산업 탄소중립 전환 속도 낸다

무탄소연료 NCC 기술개발 선정 410억 규모 국비·민간투자 확보  
여수산단 중심 친환경 전환 추진  
“선제대응지역 연계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환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납사분해 공정(NCC)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410억 원 규모의 국비 및 민간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전남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 NCC 공정의 주요 열원인 LNG 및 메탄 등 화석연료를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연료로 대체하는 친환경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 설비를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10억 원 중 국비는 293억 원, 민간 자로는 117억 원이 투입된다.

납사분해공정(Naphtha Cracking Process)은 석유에서 추출한 납사를 고온(800℃ 이상)으로 가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공정이다. 하지만 현재는 메

탄 등을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구조 탓에, 납사분해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석유화학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탄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과제는 △수소·암모니아 연소기를 포함한 납사분해공정의 친환경 전환 기술 개발 △상용급 수준의 납사 열분해 공정 설계 및 실증 △공정의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종합 분석 및 무탄소 연료공급 시스템 구축 등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납사분해공정의 탄소중립화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는 여수산단 내 대표 석유화학 장비 기업인 ㈜용호기계기술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무탄소 연료 기반의 차세대 납사분해공정 파일럿 설비 구축이 가능해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지정으로 긴급경영자금, 보조금 확대와 함께 정책금융이 강화되고,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우대보증도 진행된다. 연구개발과 경영 자문,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예산 반영이 가능하게 됐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여수시는 지방교부세 622억 원을 추가로 배정 받게 될

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3707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19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정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전남 경제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고탄소 구조로 인한 위기를 친환경 전환이라는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술개발사업은 단순한 실증을 넘어 여수산단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여수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서구 무각사와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각각 관 불의식을 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제공



## 전남도, 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선정

여수 빛섬길 조성 등 탄력 120억 지원...특화소재 활용  
섬박람회 연계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전국단위 공모에서 전라남도 여수시가 최

종 선정됐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0개 사업이 현장 발표 등을 거쳐 최종 3개 사업이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여수시는 향후 지역의 특화 소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20억 원(국비 60억 원·지방비 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수시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제관 및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빛이 들려주는 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여수 빛섬길 조성, 미디어바다(콘텐츠) 개발, 여수 빛섬 브랜드 및 굿즈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다.

이번 성과는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준비, 여수지역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의 긴밀한 협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 전라남도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계획서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용역과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조계원 의원은 문체부와 소통에도 힘을 써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전라남도과 문체부는 공모에 선정된 여

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료까지 전 주기에 걸친 모니터링·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라남도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여수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